

# 2년간 착공 못한 건축물 매년 100채 꼴

### 제주시 건축허가 직권취소 2018년 99건·2019년 95건 올 상반기 사전통지 대상 49건... 건설경기 침체 여파

건설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제주시 지역의 미착공 건축허가 직권취소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직권취소 건수는 240건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7년 46건에서 2018년엔 99건으로 급증한데 이어 지난해에도 95건에 달하는 등 급증 정도 증가했다.

이는 한때 제주살이 열풍 등으로 활발했던 도내 건설 경기가 2016년부터 침체되면서 직권취소건수가 늘어난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역시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미착공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이 꾸준히 늘고 있다.

시는 이와 관련 미착공 건축허가 건에 대해 올해 상반기 직권취소에 앞서 사전통지를 실시할 계획이다. 건축허가 직권취소 대상은 건축법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한다. 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 신설·증설 등 승인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이번 직권취소 사전통지 대상은 2018년 2월 4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

았으나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주거용 19건을 비롯 비주거용 30건 등 총 49건이다. 직권취소 사전예고는 내달 13일까지 건축관계자에게 의견제출 또는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토록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의견이 제출된 건에 대해서는 건설경기 침체 등을 감안해 최대한 의견을 반영, 오는 4월 중에 직권취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윤형기자 yhle@ihalla.com

### 교육부 "중유학생 보호 지자체·대학 적극 나서야"

교육부가 대학 개강 시기를 맞아 다수의 중국 유학생 입국이 예상됨에 따라 지자체와 대학의 긴밀한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교육부는 13일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중국 입국 유학생 지원·관리 대책 영상회의'를 실시했다.

유엔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회의에서 "지자체는 유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지역 감염 차단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대학과 지자체, 교육부가 긴밀히 협조해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는 대학 내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지자체 간 직통회선(핫라인)을 구축하고, 지자체의 위기 대응 방법을 대학과 긴밀히 공유해 코로나19에 공동 대응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부미현기자 bu8385@ihalla.com



가벼워진 겨울 옷차림 봄 날씨를 보인 13일 시민들이 다소 가벼운 옷을 입고 제주시청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강희만기자

## 버스탑재형 불법 주정차단속 '호지부지'

### 대중교통 개편이후 29대서 12대로 줄어... 단속실적도 1/4로 '뚝'

### 제주시 "CCTV 등 단속장비 확충해 사각지대 해소할 것"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버스탑재형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제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0년부터 버스탑재형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017년 8월 대중교통 체제 개편 전까지 3개 노선에 대해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버스 29대를 투입해 운영해왔으나, 대중교통 체제가 개편되면서 현재는 1개 노선 12

대 버스만 운영하고 있다. 운영되고 있는 버스와 노선이 감소하면서 2017년 3900여건에 이르던 버스탑재형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도 2018년 1155건, 지난해 980건으로 줄었다.

또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선의 버스 배차 간격이 아침에는 15분, 낮에는 30분 가량으로 운영되면서, 이 기간 내에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대중교통 체제 개편 이후 줄어든 고정 노선과 버스회사와의 협의 등의 문제로 이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시 관계자는 "대중

교통 체제 개편 이후 고정 노선이 줄면서 카메라를 설치해 단속할 수 있는 노선을 찾기가 힘든 상황"이라며 "또한 카메라 설치를 위해 버스 업체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관리가 힘들고 카메라 설치를 위해 발생하는 운행 공백 등의 이유로 설득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을 위해 CC(폐쇄회로)TV 설치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며 "버스탑재형 단속 시스템 확대가 어려운 만큼 CCTV 등 단속 시설 확충으로 불법 주정차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석기자 ik012@ihalla.com

### 오늘의 날씨와 생활

2월 14일 금요일 음 1월 21일 (13물)

####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60%	제주 20%	
60%	성산 20%	
60%	고산 20%	
60%	서귀포 20%	

#### 흐리고 가끔 비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고 오전까지 가끔 비가 내리는 곳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10-12℃, 낮 최고 기온은 16-17℃의 분포를 보이겠다. 제주도 전 해상에서 짙은 안개가 낄 것으로 예상돼 선박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해돋이 07:20	달뜨기 23:56
해질미 18:17	달짐 10:40
물때	간조 08:34
14:20	21:07

#### 주간예보

내일	흐림	12/17℃
모레	흐리고 비	6/7℃

#### 생활·안전 기상정보

식중독지수	감기가능지수
관심	보통

#### 전통시장 감시다!!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제주시민속오일장	2.7
한림민속오일장	4.9
세화민속오일장	5.10
함덕오일장	1.6
고성오일장	4.9

전통시장명	장 서는 날
서귀포향토오일장	4.9
성산오일장	1.6
중문향토오일장	3.8
표선오일장	2.7
대정오일장	1.6

### 해병대, 논란 빚은 '김두찬관' → '충성관'으로

제주4·3 당시 자행된 예비검속 학살 사건에 연루된 김두찬 전 사령관의 이름을 딴 해병대 교육센터가 '충성관'으로 이름을 바꿨다. >> 사진



제주4·3평화재단은 해병대사령부가 '김두찬관' 간판을 내리고 그 자리에 '충성관'이란 새로운 간판을 달았다는 사실을 사진과 함께 알렸다고 13일 밝혔다. 해병대는 "개인 이름을 사용하기 보다는 해병대의 핵심가치인 충성, 명예, 도전 중 맨 처음 가치인 '충성'이란 이름을 채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26일 해병대는 경북 포항 교육훈련단에 복합교육센터 '김두찬관'을 개관했지만 제주에서 발생한 수백명의 예비검속 학살의 실질적 명명자로 드러나 4·3단체의 반발을 야기했다. 송은범기자

### "4·3특별법 즉각 처리해야"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 성명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13일 성명을 발표해 "마지막 기회인 2월 임시국회에서 4·3 특별법을 즉각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2월 임시국회는 20대 국회 법안처리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며 "2월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20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

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특히 20대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7만 4·3 유족과 제주도민의 뜻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주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지원과 4·3 수형인에 대한 진상규명, 명예회복 등의 내용이 담긴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제주4·3 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은 2017년 12월 발의됐으나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상민기자

## 태양광 발전

## 자가용PPA 제도를 아십니까?

우리집 여유공간에 태양광 설치

↓

전기요금 "확" 줄이기

↓

쓰고 남는 전기는 한전에 팔기

↓

20년간 7천만원 이득

한전 계약에 의한 20년 전기판매 보장

2019년 주택 태양광 보급사업 고객선호도 1위, 공사실적 1위

새해에도 한 우물만 파온 **제주의 전문기업**과 함께 하십시오

지금 전화주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20년간 7천만원 이득\*은 태양광 발전설비 18kW 설치, 주택용 전기사용, 월평균 400kWh 전력소비, 월평균 1,782kWh 전력생산, 자가용 PPA계약 체결의 경우에 예상되는 수익입니다. (단, 전기요금 절감액 및 전력판매 수익은 발전용량, 소비패턴, 기상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PPA는 Power Purchase Agreement의 약자로 \*전력수급계약\*을 의미합니다.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 제주솔라에너지

# 742-5775

제주시 노형로 356 벽상빌딩 2층  
www.jejesolar.co.kr